

# 평균 나이 25세 '박하전문' 필승조 구성

〈준표〉 〈준영〉 〈상현〉 〈경찬〉



양현중



박준표



하준영



전상현



문경찬

## TIGERS

시즌 결산 〈상〉  
젊은 마운드 구축

양현중, 초반 부진 딛고 방어율 1위  
그라운드 안팎 귀감...원팀 원동력  
전상현, 막강 제구로 신인왕 경쟁  
문경찬, 방어율 1.31 마무리 중 1위  
임기영·이민우·박준표 선발 자원  
내부 경쟁 통한 투수왕국 기틀 마련

'선의의 경쟁'이 KIA 타이거즈의 '젊은 마운드'를 만들었다.  
KIA의 2019시즌은 실패로 끝났다. 베테랑 야수진의 동반 부진으로 어렵게 시작한 시즌은 내내 무기력하게 흘러갔다.  
5강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하고 KIA의 2019시즌은 끝이 났다.  
아쉬운 시즌이었지만 '에이스' 양현중을 필두로

한 마운드는 팬심을 달래준 희망이었다.  
팀을 대표하는 양현중은 투수 최고참이라는 역할까지 맡아 바쁜 시즌을 보냈다. 양현중은 착실하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2019시즌의 빛나는 이름이 됐다.  
초반 페이스는 좋지 못했지만 노련함으로 위기를 넘은 양현중은 16승과 2.29라는 놀라운 평균자책점으로 자신의 13번째 시즌을 끝냈다. 86개의 공으로 무사사구 완봉승을 기록하는 등 두 차례 완봉승까지 남기면서 KBO리그를 대표하는 투수로의 모습을 보여줬다.  
마운드 밖에서도 양현중은 '에이스'였다. 경험이 적은 젊은 선수 일색인 마운드에서 양현중은 후배들에게 움직이는 교과서였다.  
올 시즌 특급 마무리로 변신한 문경찬은 "선배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팀엔 확실한 선배 한 명이 있다"며 "운동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보고 배울 점이 많은 것 같다"고 양현중이 후배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투수조 조장으로 2019시즌을 보낸 고영창도 "현종이 형이 워낙 후배들 잘 챙기고, 후배들도 많이 따르고 하니 내가 자연스럽게 편하게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양현중을 중심으로 투수들은 '하'로 뚝뚝 뭉쳐 올 시즌을 보냈다.  
"누가 나가든 서로 잘하라고 응원해 주고, 다른 선수가 잘하면 나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투수들의 이야기가 올 시즌 KIA 마운드의 성공 이유를 말해준다.  
팀 성적은 7위로 끝났지만 KIA는 평균자책점 1위를 배출했다. 뒤늦게 세이브 경쟁에 뛰어들어 문경찬은 세이브 부분 5위(24개)에 올랐다. 1.31의 평균자책점으로 마무리 투수 중 가장 좋은 기록도 냈다.  
KIA는 '박하전문'이라는 막강 필승조도 구성했다.  
사이드암 박준표를 시작으로 좌완 하준영, 우완 전상현, 마무리 문경찬으로 이어지는 불펜진은 어느 팀에도 밀리지 않는 견고함을 보여줬다. 평균나이가 25세, 1999년생 마필 하준영을 제외하고 모두 군필이라는 점도 반갑다.  
'젊은 마운드'의 미래가 더 기대되는 이유 중 하나는 '군필'이다.  
오랜 시간 투수 영입에 공을 들여왔던 KIA는 김기태 감독 시절 현재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팀 미래에 초점을 맞춰 유망한 자원의 군 입대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결과 올 시즌 KIA '젊은 마운드'는 대부분 군필로 꾸려졌고, 연속성을 이어가게 됐다.  
시즌 막바지 KIA 마운드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신인왕 후보' 전상현이 막강한 구위와 제구로 마무리 어필을 했다. 문경찬도 직구 스피드를 150km까지 끌어올리면서 맛볼을 냈다.  
두 외국인 투수의 부진으로 시즌 내내 선발진 고민은 있었지만 사이드암 임기영, 우완 이민우, 좌완

이준영이 마지막 선발 등판에서 선발 경쟁의 불씨를 키웠다. 지난해 퓨처스리그 '2관왕' 박준표도 선발 경쟁에 뛰어든다는 등 KIA 마운드는 앞으로 '선의의 경쟁'을 이어가게 됐다.

KIA는 몇 년에 걸쳐 이뤄진 유망주 영입과 군로 데이션 그리고 선수들의 내부 경쟁을 통해 투수 왕국 재건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KIA 출신 김유신 평균자책점·다승왕

KBO 2부리그 마무리...상무 야구단 8년 연속 정상·KIA 남부리그 3위

2019 KBO 퓨처스리그가 514경기 대장정을 끝냈다.  
지난 3월 26일 개막한 KBO 퓨처스리그가 지난 30일 상동구장에서 열린 고양과 롯데의 경기를 끝으로 올 시즌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2019 KBO 퓨처스리그는 11개 팀이 남부(KIA, 상무, 롯데, NC, KT, 삼성)리그와 북부(한화, 고양 히어로즈, SK, LG, 두산)리그로 나누어 대결을 벌였다.  
남부리그에서는 상무 야구단이 2012년 이후 8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북부리그에서는 한화 이글스가 2006년 이후 13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다.  
KIA는 40승 13무 42패(승률 0.488)의 전적으로 남부리그 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박준표(경찰)와 전상현(상무)이 각각 북

부리그, 남부리그 다승왕과 평균자책점왕을 차지한 데 이어 올 시즌에도 상무에서 북부 중인 KIA 김유신이 투수 2관왕에 등극했다.  
김유신은 평균자책점(2.25)과 다승(12승) 부문 1위에 오르면서 KBO포스트시즌 종료 후 열리는 2019 신한은행 MY CAR KBO 시상식에서 트로피와 상금을 받는다.  
한편 KBO는 퓨처스리그 활성화를 위해 퓨처스 서머리그를 확대 편성하고 15경기 생중계 등에 나섰다.  
또 KBO 퓨처스리그 전용앱과 퓨처스리그 인공지능(AI) 로봇기사 케이봇(KBOT)을 통해 퓨처스리그 경기 일정과 결과, 순위, 기록 등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도 제공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레반도프스키

## 레반도프스키·아게로 '메달두 아성'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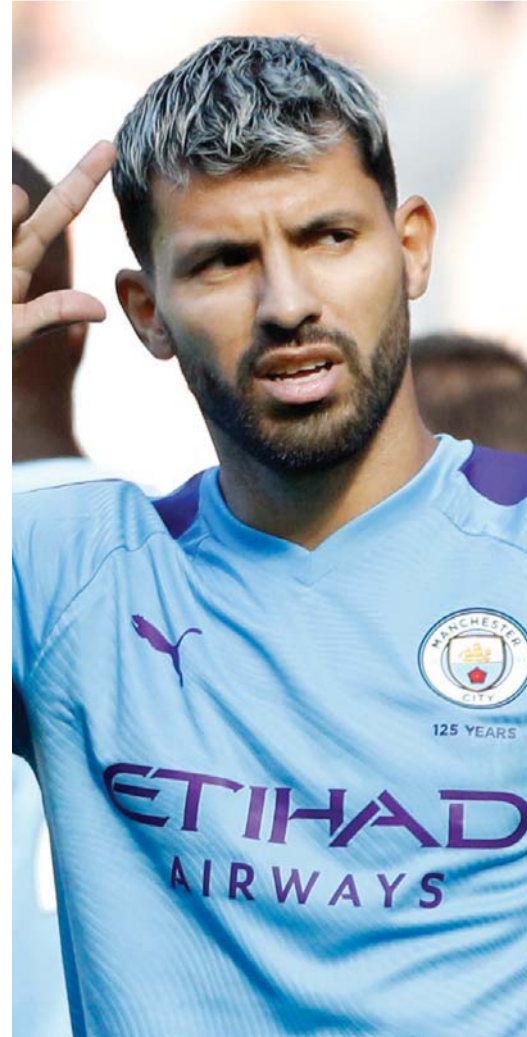
〈메시+호날두〉

레반도프스키, 분데스리가 최초 6경기만에 두자릿수 골...외인 최다 득점  
아게로, EPL 개막 후 6경기 연속 골·최근 5시즌 연속 20골...득점 선두

그동안 많은 선수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와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의 '신계(神界)'에 도전했다.  
네이마르(파리생제르맹), 해리 케인(토트넘), 모하메드 살라(리버풀) 등이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결국 '메달두' (메시+호날두)를 넘지 못했다. 이들의 아성은 넘사벽이라는 뜻으로 '신계'로도 불린다. 신들이 머무는 세계다.  
최근 '신계'에 근접했다고 평가 받은 라다멜 팔카오(갈라타사라이)와 루이스 수아레스(바르셀로나)는 반짝 활약에 그치는 등 꾸준함을 이어가지 못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시절 '메달두'에 버금가는 활약을 펼친 팔카오는 한때나마 '인간계 최강'이라는 닉네임을 얻기도 했다.  
올 시즌 초반 '메달두'에게만 허락된 신계에 분데스리가의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바이에른 뮌헨)와 프리미어리그의 세르히오 아게로(맨체스터 시티)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레반도프스키는 올 시즌 유럽에서 뜨거운 공격수다. 지난달에는 분데스리가 이달의 선수로 선정

되기도 했다.  
레반도프스키는 지난달 28일 파더보른 벤켈러 아레나에서 열린 파더보른과의 2019-2020 분데스리가 6라운드 원정경기에서 1골을 터뜨리며 바이에른 뮌헨의 3-2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1골을 넣은 레반도프스키는 9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다.  
리그 6경기만에 두 자릿수 골을 넣은 최초의 분데스리가 선수라는 기록도 작성했다. 이 골로 2015-2016시즌 도르트문트 소속으로 8경기에서 10골을 넣은 피에르-오마레앙(아스날) 기록을 2경기나 단축했다.  
'만능 공격수' 레반도프스키는 꾸준함으로 신계를 노크하고 있다.  
지난 2010-2011시즌 도르트문트 소속으로 분데스리가에 데뷔한 레반도프스키는 지난 2011-2012시즌을 시작으로 9시즌 연속 10골 이상을 기록했다. 분데스리가 역사도 새롭게 써가고 있다. 현재 분데스리가 통산 212골로 외국인 최다득점 1위를 달리고 있다. 만 31세에 불과한 그가 벌써 분데스리가 레전드로 불리는 이유다.

세르히오 아게로도 유럽에서 가장 핫(hot)한 공격수다. 지난 2014-2015시즌 리그에서 26골을 터뜨린 것을 시작으로 지난 2018-2019시즌까지 5시즌 연속 리그에서 20골 이상을 쏟아냈다.  
팬들은 그를 주저 없이 유럽 탑클래스 공격수로 꼽는다. 빼어난 기록과 달리 아게로에게는 늘 기복이 심하다는 꼬리표가 따라 붙었다.  
하지만 아게로는 지난 2016년 뎀 파르디올라 감독 선임 이후 안정된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달 21일 8-0으로 끝난 왓포드와의 리그 6라운드 홈경기에서 아게로는 전반 7분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었다. 이날 아게로는 리그 개막 후 6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아게로는 2004-2005시즌 아스날의 안토니오 레예스와 2011-2012시즌 웨인 루니(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5경기 연속골 기록을 6경기로 늘렸다. 팀에서 한술밥을 먹는 브라질 국가대표팀 주전 공격수인 가브리엘 제수스는 아르헨티나 출신 아게로의 활약에 밀려 리그 2경기 출전에 그치고 있다.  
아게로는 지난달 29일 에버튼과의 리그 7라운드에서 가브리엘 제수스 대신 후반 21분 투입돼 7경기 연속골을 노렸지만 아쉽게 실패했다.  
아게로는 현재 7경기 8골로 프리미어리그 득점 단독선두를 달리고 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아게로